2022년 / 8월 4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8월 18일 연구원 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일곱분의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열 번째를 맞이하는 회원의 날과 개우너 16주년 기념식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유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만전을 기할 것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후 안식년을 맞아 일년간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는 윤상원 운영위원의 무사 귀환을 비는 조촐한 환송회도 열렸습니다. 연구원 사업에 선두에서 함께하던 윤상원 운영위원이 안식년 기간 내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2022년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식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일 만입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 **세부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1일차 (土)	14:00 ~ 14:30	준비 및 등록 준비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14:30 ~ 15:30	참석자 도착 및 숙소배정
	15:30 ~ 16:00	람사르 습지 사전 교육
	16:30 ~ 18:00	운곡 람사르 습지 탐방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19:30	개원 16주년 기념식 및 우수회원 시상
	19:30 ~ 20:30	"활자본색" 저자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및 사인회
	20:30 ~ 22:00	뒤풀이
	22:00 ~	자유시간
2일차 (日)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00	힐링파크 체험활동(복분자, 아로니아 청 만들기 등)
	10:00 ~ 11:00	경품 추첨
	11:00 ~	귀 가

■ 역사 속의 오늘

청년 노동자의 죽음 - 1988. 8. 22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꼬리를 물고 한반도를 뒤덮었다. 경향각지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그때처럼 힘차게 펄럭인 적은 아마 1946년 9월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총파업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1987년 8월 8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대우조선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회사 측의 방해 공작도 치열했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목도 있었다. 하지만 85년부터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상시적인 해고의 공포에 질려 있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대우 가축' 아닌 '대우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결국 8월 22일 사측과의 협의가 결렬된다. 현장수당 2만원과 가족 수당 1만원 신설이 조합의 요구였지만 회사 측은 매정하게 고개를 젓는다. 이에 노동자와 가족들은 당시 거제도 현지에 내려와 있던 김우중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몰려간다.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면 길을 터준다 약속했고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은 노동자들은 오리걸음으로 행진했다.

불볕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날, 시커멓게 타버린 얼굴의 노동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낑낑대며 기어가던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가슴이 아려온다. 그러나 정작 김우중 회장이 머물던 호텔 앞에 이르자 경찰들이 약속을 깨고 갑자기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작한다. 그 아비규환이 잠잠해질 무렵 노동자 한명이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절명한 채 발견된다.

이석규. 고향 남원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직업훈련원을 거쳐 병역의 의무를 위해 방위산업체인 대우 조선에 와서 4년 동안 억척스럽게 일한 푸르디 푸른 청춘. 그는 회장님 얼굴 좀 뵙자고 외치면서 찌는 태양 아래 오리걸음으로 걷다가 숨지고 말았다. 진압하던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가슴에 맞은 채...

그 죽음은 여러 파장을 불러 왔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들은 격분했고 완강히 버티던 사측도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8월 27일 임금협상이 타결됐고, 28일 장례식이 결정됐다. 장례식 당일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하던 영구차는 경찰의 습격을 받는다. 그리고 고인의 시신은 탈취되어 고향 땅에 묻히게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이 87년 이석규를 비롯한 선배들이 머리가 깨지고 목숨을 잃으며 싸워서 심은 나무의 열매임을 기억한다면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감수하며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 지 자명해질 것이다.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에 있는 이석규 열사 묘지 앞 비석, 당시 대우 회장이던 김우중의 이름과 목숨을 앗아가고 대우가족이란 글씨를 파놓은 부분은 훼손되어 있다.